

##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세계적 케이-축제로 키운다

- '24년~'26년 집중 지원,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목표
- 음악·전통·겨울 체험, 차별화된 3색 매력으로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세계 10대 축제와의 교류, 해외 시연회 연계 관광상품 판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를 공모하고,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축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 중 선정, '24년 축제당 국비 6억 6천만 원 지원,  
문체부, 관광공사, 3개 축제 함께 '글로벌 축제 협의체' 구성해 상승효과 강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문화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지금,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해 해당 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30개 축제가 신청한 가운데 서면 평가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평가를 통해 공연 예술형(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전통문화형(수원 화성문화제), 관광자원 특화형(화천 산천어축제) 축제를 각각 선정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악과 전통문화, 겨울 체험 등 차별화된 매력을 바탕으로 이 축제들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200여 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한 우수축제

먼저 축제별 콘텐츠의 특징과 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진단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을 통한 상담과 맞춤형 전략 마련을

지원한다. 교통과 숙박, 다국어 안내 등 수용태세 정비부터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와 축제 연계 방한 관광상품의 고정수요 확보, 국제 홍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축제당 국비 총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 시연회(가칭 Korea WorldFest)도 개최해 이 축제들이 세계인이 일생에 꼭 방문해야 할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인시킨다.

특히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3개 축제와 ‘글로벌 축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24년~’26년) 동안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해외 시연회 등 홍보마케팅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계 상승 효과를 강화한다. 전문가 평가자문단을 통해 연간 성과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차별화된 3가지 매력으로 성향별, 연령별, 계절별 외래관광객 수요층 유치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케이-록(K-Rock)’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음악축제로서 국내외 최정상 예술인 50여 개 팀의 공연과 교통 편의성, 풍부한 숙박시설이 외래관광객 유치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한국형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세계 최대 음악창조산업 축제)를 목표로 애호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음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펜타포트 쇼케이스’를 새롭게 추진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자체를 축제 콘텐츠로 즐기는 행사이다. 관광공사가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해 조사한 해외 인지도와 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잘 갖추어진 다국어 안내 체계가 수용태세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미식과 쇼핑, 드라마 촬영지 관광, 최신 유행 행리단길 관광 등 축제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20·30세대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이자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겨울이 없는 동남아와 중동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체험’을 상품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게 한다. 인구 2만 3천 명의 작은 산골 마을에 131만 명이 방문해 865억 원의 소비지출('23년 기준)을 달성하는 국내 최대 겨울 축제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축제’ 지원 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연계해 개선하고, 단체 관광객 이외에도 개별 여행객(FIT)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펼쳐 3년 뒤에는 외래관광객 15만 명('23년 8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겨울철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글로벌 축제’를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콘텐츠와 세계 수준에 맞는 안내 체계, 바가지요금 없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도록 지원해 세계인이 찾는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4~2026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 소개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서민정 (044-203-2851)
		담당자	사무관	이솔 (044-203-2852)



# 국가대표

Korea  
World Fest 3

# 글로벌 축제

세계인을 한국으로 모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Soundwaves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 'K-ROCK'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음악축제



-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 50여개 팀의 공연과 교통 편의성, 풍부한 숙박시설이 강점
-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육성

Palaces

## 수원화성문화제



-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왕의 행차'
-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관광이 집약된 축제
- 한국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육성



Ice Rivers

## 화천산천어축제

- 소멸 위기의 최전방 접경지역 산골마을에서 국내 최대 겨울 축제 무대로 도약
- 얼음 빙판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체험형 축제
-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 겨울 축제로 육성

